

생산설비 증설
고려전기 (주)

고려전기(대표 : 이기룡)는 최근 일본 합작선인 시즈게전기가 올해부터 OEM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을 포함, 멕시코 RCA社 등 기존 거래선으로부터의 주문이 연초부터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설비 증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30여억원을 설비증설에 투자, 생산능력을 현재의 월 1,100만개에서 7월부터는 월 1,400만개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사는 특히 지금까지 월 30만개 수준에 불과했던 대일수출을 올해부터 월 200만개로 늘리기로 시즈게전기측과 합의하고 정격전압 1,000~2,000V, 정전용량 0.001~0.1 μ F의 인버터조명용·디스플레이 모니터용 제품을 중심으로 OEM공급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SCSI방식
「CD-ROM」 드라이브
개발·판매**
(주) 금성사

금성사(대표 이현조)는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방식의 CD-ROM 드라이브(모델 : GCD-R300)』 2기종(내장형/독립형)을 개발했다.

동사는 이미 '90년말 차세대 대용량 정보기억장치로 불리는 CD-ROM 드라이브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수출에 주력해 왔으며, '91년부터 모든 기종의 PC에 적용이 가능한 SCSI방식 CD-ROM 개발에 착수, 2년여에 걸쳐 약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자체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향후 멀티미디어 관련 중요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제품의 주요 사양으로는 데이터 검색시간(Access Time)이 320 msec로 일본 TOSHIBA(모델 : TXM-3301)의 325msec보다 우수하며,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2.2MByte/sec, 전송률이 최대 170KByte/sec이며, CD-ROM 드라이브의 성능을 결정하는 CPU Bandwidth(데이터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비율)에서도 23%를 실현하여 TOSHIBA의 29%, SONY의 26%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서 CD-DA(음악용 CD), PHOTO CD(전자앨범)의 재생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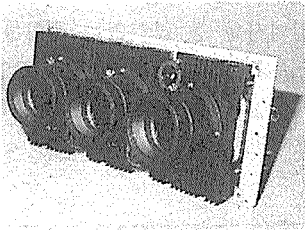
HDTV용 렌즈 개발
(주) 금성사

금성사(대표 이현조)가 국내 처음으로 프로젝션형 HD(고선명) TV용 렌즈를 자체 개발했다.

(주)금성사는 영상미디어연구소를 통해 2년여간 10억원을 투입,

업·계·소·식

개발에 성공한 이 렌즈는 수평해상도 1,000선, 브라운관형광면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TCL) 880mm로 미국, 일본의 해상도 800선, TCL 938mm보다 우수하고 단초점렌즈로 프로젝션 TV의 슬림화가 용이하다.



또 스크린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밝기 차이인 주변광량비가 외국산보다 20%정도 높아 보다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HDTV외에 NTSC방식은 물론 현행 TV의 개량형인 EDTV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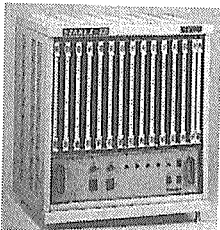
또 화면크기도 40인치에서 55인치까지 실현할 수 있어 향후 차세대 프로젝션 TV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기능 디지털 사설교환기 개발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구내의 PC 전화 팩시밀리 등 각종 단말기를 접속해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다기능 디지털 사설교환기(PBX)를 개발했다.

동사가 개발한 PBX는 96회선 용량의 STAREX·CD와 192회선의 STAREX·CD로 이들 제품은 데이터 화중 긴급호출기능 등의 교환 기능을 가지며 특히 디지털 전화를 연결하면 종전에 대용량 사설 교환기에서나 가능했던 음성·데이터의 동시 통신도 가능하다.

동사는 또 이들 제품이 키폰 시스템으로는 구축이 불가능한 자동 전용 통신망기능을 보유, 산재된 사업장간을 전용선망으로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인 통화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사는 앞으로 이 제품을 ISDN(종합정보통신망)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영국, 미국 등지에서 접속이 가능토록 해 선진국 시장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전국 특약점 사장단 고객만족 세미나 개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유통망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전국 190개 통신기기 특약점 사장단에 대한 고객만족세미나를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주공장 및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실시했다. 금성통신은 지난 달에도 전국 서비스부서원 100명에게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했고 4월에는 고객의 달 캠페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최근 시장 개방과 과당경쟁 환경의 타개를 위해 영업 및 서비스력 강화로 고객만족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약점사장단 고객만족세미나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 실천 및 재무장에 대하여 통신기 사업부장인 오세희 부사장의 강의를 비롯하여, 고객만족경영을 통한 대리점 성공전략, 우수업체 포상식, 회사의 최적생산시스템 구축 및 중기제품 전략에 대한

업·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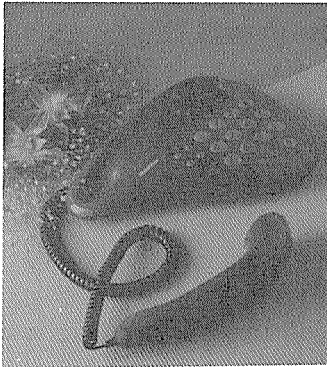
설명회, 특약점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4월 고객의 달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회사의 전 임원들과 일선 영업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특약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격의없는 대화를 수렴후 경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성통신은 최근 회사의 경영개선 사항 및 회사의 비전을 특약점 사장들에게 설명하고 비전공유를 다짐했으며 상호 이해증진 및 단합을 결의했다.

패션 電話機

市販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전자/기계식 겸용으로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전화를 걸수 있는 온후크다이어얼기능과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3개를 미리 기억시켜 놓았다가 한번의 버튼 조작(One Touch)로 전화를 걸수 있는 원터치메모리기능의 패션전화기(모델명 : 금성월드 폰 GS-680)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션전화기는 마지막 건 전화번호를 재호출할 때 한번의 버튼조작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재다이어얼기능, 사설교환기, 키폰과 연결하여 재다이어얼(혹은 단축다이어얼)기능 사용시 국선전화번호(9) 톤이 나오는 2초정도 후에 상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다이어얼되게 하는 포즈기능, 기계식 교환국회선 가입자도 전자식 신호가 필요할 때(증권, 은행 등의 전화서비스) "톤(*)"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전자식 신호가 송출되어 전자식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톤변환기능, 통화중 상대방을 잠시 기다리게 할 때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보류음악송출기능 및 자동 보류해제기능, 착신음량 및 온후크음량 조절기능이 실장되어 편리한 다기능 패션전화기이다.

DC/DC 컨버터

양산

단암산업 (주)

단암산업(대표 이경서)이 DC/DC 컨버터를 양산, 내수 및 수출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단암산업은 통신 및 산업기기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납품업체를 늘려 간다는 방침아래 대상업체에 대한 샘플 제공에 나섰다.

또 한국통신공사 품질보증단의 품질인증을 받아 통신공사에 제품을 공급기로 하고 현재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의 경우 품목을 다양화해 생산량을 늘려가되 특히 미국과 유럽시장에 중점을 두되 해외판매법인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현지 유통업체를 대리점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SEOUL GRAPH

'93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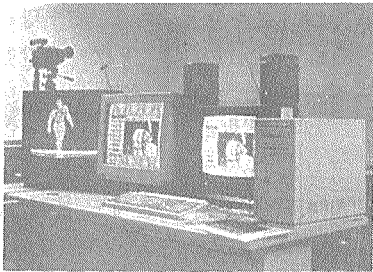
대우통신 (주)

컴퓨터그래픽스 선진기술 보급과 첨단영상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할 SEOUL GRAPH '93(제2회 한국컴퓨터그래픽스 대전)가 한국컴퓨터그래픽스 협의회(KICOG)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며, 대우통신, 일본 컴퓨터그래픽스 협회의 후원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한국 종합 전시장(KOEX)에서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컴퓨터그래픽스 산업의 교류확대를 위해 전문전시회, 세미나, 필름쇼 등 각 서브이벤트의 국제성을 부각시켜 기획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유명 CG프로덕션사가 대거 참석, 해외 CG계의 경향 및 신동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의 신제품 소개 및 국내 CG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HW/SW 전시와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작품 전시회가 4월 28일(수)부터 5월 2일(일)까지 5일간, KOEX 1층 태평양관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학술토론 행사인 전문 세미나에서는 미·일 등지의 저명한 CG Specialist들과 국내 각분야 전문가들이 멀티미디어/건축/의학/방송 분야 등의 전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KOEX 3, 4층 회의실에서 열리게 된다.



멀티 486PC

개발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이 PC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튜너, 사운드카드 등을 장착한 멀티미디어 486PC 신제품(모델명 CPC-8885 VWSE)을 개발했다.

대우통신이 기본으로 장착한 TV튜너(모델명 CPO-015)는 프로그램 실행도중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핫키만으로 언제나 TV 및 VCR를 시청할 수 있고 키보드로 볼륨 및 화면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채널기억 및 등록 기능을 갖추고 있고 화면에 시간이나 조종상태가 표시되는 온 스크린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램으로 2메가를 기본으로 4메가까지 확장할 수 있고 FDD는 5.2인치를 기본으로 장착했으며 3.5인치를 선택사양으로 하고 있다.

영국서 486PC

최우수 PC로 선정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김종길)의 수출기종중 하나인 486DX-66 PC가 영국의 유력지인 「윈도즈 매거진」 3월호에서 현지 8개 제품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스타 바이」로 선정됐다.

이번 성능 비교에는 삼보 제품 외에도 메시 M486DL-120-DC, 아톰스타일 SY 900 등 8개 제품의 확장성·성능·디자인 등 항목에 대해 평가했는데 삼보의 제품이 외관이 깨끗하고 안정됐으며 빠른 스피드 제공과 윈도우 환경에서 강력한 파워와 확장성을 지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33" 평면사각
CPT 개발**
삼성전관 (주)

삼성전관(대표 박경팔)은 지난 '89년부터 5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최근 곡률이 거의 없어 뛰어난 해상도의 화면구성이 가능하고 다이내믹 포커스 전자총과 함침형 음극선관을 채용, 휘도 및 수명을 향상시킨 33인치 초대형 컬러TV용 평면사각(FS형) CPT를 개발했다.

동사는 대형 TV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키 위해 33인치 FS형 브라운관을 오는 5월부터 연간 5만대 규모로 양산에 들어가 우선 내수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수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개발된 33인치 평면사각브라운관은 지난 '90년 CPT·유리벌브업체가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으나 유리벌브업체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발을 포기해 삼성전관이 이번 33인치 CPT를 양산할 경우 유리벌브는 전량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용 MDP
국내 첫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18일 CD(컴팩트디스크) 수준인 고음질로 디지털음을 재생할 수 있을 뿐아니라 녹음도 가능한 MD플레이어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국내판매와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91년부터 60억원의 개발비와 4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MY-MD11)은 디스크 직경이 CD 12cm의 절반정도인 6.4cm에 불과, 휴대하기 편리하고 적외선레이저와 자기헤드를 이용해 디지털방식으로 최대 74분까지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약10초간 오디오데이터를 저장 기억할 수 있는 4메가비트의 메모리 반도체를 채용, 외부충격때 나타나는 음의 떨림현상을 방지, 운동이나 휴대시에도 고음질의 디지털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동사는 특히 핵심부품인 데크메커니즘을 국산화했고 광자기기록 재생 및 편입기술, 외부충격시 진동을 흡수하는 내진기술 등 핵심기술까지 확보했다.



업·계·소·식

삼성은 앞으로 휴대용외에 가정용 및 자동차용 MDP도 개발할 계획이며 LD(레이저디스크) MOD(광자기디스크)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인 MD생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가형 24핀 136칼럼 도트프린터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는 최근 24핀 136칼럼 도트프린터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SP-2433HW)은 헤드 평균수명을 4,000 시간으로 늘려 품질을 개선하고 자체 헤드 개발을 통해 원가의 25%를 절감, 15만원 상당의 자동급지기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6개의 영문 및 2개의 한글 글자체와 한자를 지원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최적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8개의 인자 피치와 함께 8KB에 32KB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억용량을 갖추고 있다.

프린터부문 집중 육성 신도리코 (주)

신도리코(대표 우석영)가 LBP를 중심으로 한 프린터를 전략품목으로 중점 육성키로 하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렉스마크사의 레이저빔 프린터(LBP)를 도입, 프린터시장에 진출한 신도리코는 프린터를 자체개발, 상품화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말 프린터개발 전담부서인 연구 4부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 국산 엔진을 장착한 LBP의 본격 개발 및 생산을 전담할 LBP연구개발팀을 만들었다.

마이크로사업 본격 진출 (주) 신우음향

(주) 신우음향(대표 이종배)은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고급 마이크로사업에 본격 진출, 이달중 서울 공장에 마이크 전용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하는 대로 양산에 들어가 수출과 내수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이에 따라 최근 수출용 고급마이크로인 「CM-E550」을 개발한 데 이어 오는 5월 일본 아이와 및 켄우드사와 OEM수출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노래방 특수로 활성화된 국내 마이크로시장을 겨냥해 자체 브랜드 모델도 개발, 양산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동사가 개발한 마이크는 진공관을 두 겹으로 덮어주는 더블돔방식을 채용, 마이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몸체를 일반 플라스틱 사출이 아닌 금속 다이캐스팅으로 처리한 고급품으로 알려졌다.

**전자동 트림시스템
개발**
아남산업 (주)

아남산업(회장 김주진)이 PLCC(Plastic Leaded Chip Carrier) 68 리드와 BQFP(Bumpered Quad Flat Package) 겸용 전자동 트림(Trim)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매트릭스 SOIC패키지용 전자동 트림시스템에 이어 이번에 개발된 이 시스템은 리드프레임 등 몰딩된 자재를 담은 박스인 매거진을 교체하는 다른 시간손실을 줄이기 위해 멀티 스톡 매거진 구조를 채택했으며 가동중에도 트림된 자재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특별할 검사공정을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퍼스널 컴퓨터를 탑재, 장비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에러메시지와 명령어들을 한글화하고 에러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표시, 작업자의 이해판독 및 시스템관리가 손쉬운게 특징이다. 또한 작업수량·다운타임·가동률 등의 데이터가 자동수록돼 CIM체제 구축에도 유리하다.

**방자형 스피커
시스템 개발**
(주) 인켈

(주) 인켈(대표 최석한)이 첨단 신소재를 채용하고 강성설계로 공진을 최대한 억제한 AV시스템용 방자형스피커 시스템(모델명 S-9500B)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동사가 개발한 이 스피커시스템은 최대 허용입력 270W 공칭임피던스 6Ω의 3웨이 3스피커방식으로 초경질 티타늄판을 25μ두께로 진공판을 형성한 DDD형태의 돔 트위터를 채용했으며 첨단신소재인 퓨터크로스 카본진동판을 사용, 저역에서의 불필요한 진동을 억제해 깨끗한 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피커입력 단자를 금도금처리해 접촉저항을 최소화했으며 무산소銅 스피커 케이블을 채용, 음질을 개선했다.

**노트북 PC용
STN급 LCD부품
도시바와 기술제휴**
오리온 전기 (주)

오리온전기(대표 엄길용)는 일본 도시바와 컬러 및 흑백 9.5인치 노트북 PC용 STN급 LCD(액정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간의 기술제휴계약은 오리온전기가 한국내에서 도시바와 체결한 관련기술을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시장 제한없이 3년간 기술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을 비롯, XGA 및 STN(수퍼매트릭스형)급 LCD 기술이전을 포함, 제품개발방향에 대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술제휴는 오리온전기가 LCD생산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도시바측에 제의를 한이래 10여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이뤄진

업·계·소·식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미공단내에 오는 '94년 3월 완공예정으로 총투자 750억원을 투입, LCD생산공장을 건설중인 오리온전기는 이번 계약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STN급 LCD부문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TFT LCD의 개발 및 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LCD분야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주기판 본격 생산

제일정밀 (주)

제일정밀(대표: 조성길)은 미국 마이크로닉스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컴퓨터 마더보드(주기판) 생산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미국 샌호제이에 있는 마이크로닉스사를 방문, 양사간의 기술협력계약을 정식 체결했으며 함안제2공장에서는 마더보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생산되는 제품은 486 50메가Hz 및 66메가Hz 베사(VESA)로 쉘버스 방식이며 하반기중 펜더업 모델용 마더보드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동사는 마이크로닉스사로부터 칩세트, 설계 등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6개월 정도의 기술축적을 거쳐 해외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 공급에 나섰다.

또 장기적으로는 마더보드와 기존 프린터사업을 바탕으로 컴퓨터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이크로닉스사는 월 5만개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춘 마더보드 전문업체로 아시아지역 사업확대를 위해 제일정밀과 이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LAN 전용 PC 시판

(주) 큐닉스 컴퓨터

큐닉스 컴퓨터는 LAN(근거리통신망)전용 컴퓨터인 32비트 PC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시큐리티)은 기존 컴퓨터 3분의 1정도의 초소형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 업무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2백92×2백96×59mm의 크기에 무게 3.9kg으로 LAN카드가 내장돼 있으며 같은 기종의 PC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특히 LAN전용 PC로 개발돼 LAN을 이용한 사무환경에서 암호기능으로 인한 보안유지에 최적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4MB 3.5" FDD양산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의 고용

현대전자산업 (주)

량화 추세에 따라 4MB(메가바이트)용 3.5인치 제품의 양산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양산되는 제품(HMF361)은 수직기록방식 헤드를 사용해 기록밀도의 고용량화를 실현, 4MB 디스크 1장당 2.94gMB용량으로 36만9,000자 정도의 저장영역을 갖추고 있다.

'93 새일터

창조운동 결의대회 개최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대표 : 정몽헌)는 30일 경기도 이천 본사 체육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93 새일터 창조운동으로 명명된 이번 결의대회는 과거의 관습적으로 내려온 각종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근원적으로 척결,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개하는 실천적 운동으로 의식개혁/협력업체와의 협력체제강화/고객에 대한 신뢰감조성/기업의 사회기여 운동 등을 주된 실천내용으로 삼고있다.

동사는 이번 운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사장을 위원장으로 의식개혁 소위원회를 비롯 업체협력 소위원회, 대고객소위원회, 사회기여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본부별 실무추진팀과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각각 계층별협의회와 취미서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PCB 전부문

ISO9002 인증 취득

대덕전자 (주)

대덕전자(주)(대표 : 김정식)는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영국의 BSI(세계 최고의 품질보증기관)로 부터 심사 Initial Assessment를 받은 끝에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PCB 전부문에 대하여 ISO9002 인증을 획득,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83년 미주지역으로 직수출을 시작한 이래 동사는 그동안 주요수출 거래선으로부터 문서 및 공정감사(Annual Survey)를 받아온 관계로 문서 및 공정전부문에 걸쳐 철저하게 System화 되어 왔었지만 더욱 완벽한 준비 및 인증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난 '92년 11월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업체중 거의 완벽에 가깝게 최소의 지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식 인증서는 4월말에 도착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 9002 인증은 PCB 제조 공정의 전부문 품질 System을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국내 업체가 취득한 ISO 시리즈 가운데 전부문 획득은 동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기존의 수출 거래선에 대한 품질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EC 시장 등 신규 해외시장에 대한 제품의 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되었다.